

전신성 경화증 환자에서 ^{99m}Tc -DTPA 폐제거율의 의의

경북대학교 내과학 교실, 핵의학과 교실[†]

이명권*, 감영모, 강혜련, 김재한, 노현주, 현상훈, 남언정, 김진우, 이종명, 이재태[†], 김능수

목 적 : ^{99m}Tc -DTPA 연무스캔의 폐제거율은 폐포모세혈관막의 index of barrier를 반영하는 검사로서 폐포 상피세포의 투과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폐포 상피세포의 투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나 질병들 즉, 흡연, 유리질막병, 진폐증, pneumocystis carinii 폐렴 등에서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전신성 경화증에 있어서도 폐질환이 동반된 경우 폐제거율이 증가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일산화탄소 폐확산능(DLCO)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질병의 활성도를 반영하는 검사와의 상관관계는 아직 연구되어있지 않았다. 이에 저자들은 폐질환이 동반된 전신성 경화증에 있어서 ^{99m}Tc -DTPA의 폐제거율이 증가된 정도와 폐기능검사 및 혈액검사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방 법 : 전신성 경화증 환자 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질환 대조군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10명을 연령과 성비에 맞게 선정하였다. 생리식염수 10ml에 혼합한 2.5mCi ^{99m}Tc -DTPA연무를 흡입시킨 후 감마카운터를 이용하여 반감기($T_{1/2}$)를 측정하고 폐기능 검사와 혈액검사로 ESR, CRP, C3와 C4를 시행하여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성 적 : 1. 전신성 경화증 환자군과 대조군의 평균연령은 각각 41.7세 및 47세였다.

2. 흡연자는 전신성 경화증 환자군이 1명(11%), 대조군이 1명(10%)으로 차이가 없었고, 전신성 경화증 환자군 가운데 7명(78%)에서 단순흉부사진에, 그리고 9명 모두에서 HRCT에서 폐침범소견이 있었다.

3. ^{99m}Tc -DTPA 연무스캔의 $T_{1/2}$ 은 전신성 경화증 환자군에서 31.2 ± 12.7 분으로 대조군의 51.9 ± 15.0 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p=0.005$).

4. 전신성 경화증 환자군에 있어 ^{99m}Tc -DTPA 연무스캔의 $T_{1/2}$ 은 DLCO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p=0.108$), 전체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상관계수가 0.481($p=0.037$)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FEV₁, FEV₁/FVC, FVC, ESR, CRP, C3 그리고 C4 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결 론 : ^{99m}Tc -DTPA 연무스캔의 폐제거율은 폐질환이 동반된 전신성 경화증 환자군에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 DLCO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전체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F-198 —

관절염 측면에서 본 베체트씨병(Behcet's disease)의 임상적 분석

박재호*, 박승국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내과학교실

서론 : 베체트씨병의 가장 흔한 증상중의 하나인 관절증상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방법 : 1997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류마티스내과를 방문하여 3개월이상 지속적인 외래진료를 받았던 환자들 중에서 Shimizu criteria에 의해 베체트씨병으로 진단된 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나 「가능형」 베체트씨병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임상상을 평가하였으며, 관절증상에 대해서는 이환된 관절의 종류, 관절염의 재관절적인 정후의 종류, 관절증상의 유형 등을 조사하였다. 기본적인 임상병리, 방사선학적 검사와 HLA검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 35명 대상환자 모두에서 통증을 수반한 명백한 재발성 구강궤양의 소견을 보였다. 성기궤양은 29%에서, 피부병변은 77%, 포도막염은 9%, 위장관계 궤양은 6% 그리고 혈관계 병변은 6%에서 각각 나타났다. 관절증상은 97%에서 보였으며, 슬관절(91%), 근위수지관절(53%)과 중위수지관절(21%)이 주로 이환되었다. 압통은 91%에서, 관절종대는 44%에서 있었다. 다발성 관절염은 47%에서 보였으며, 대부분의 경우(76.4%) 관절염 증상은 단기간만 지속되어 4주내에 현저한 호전을 보였다. 류마티스인자는 9%에서 발견되었으나 전부 저역가였으며, 항핵항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C-반응성 단백질은 활동성 베체트씨병에서 대개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HLA B51은 46%에서 양성이었다.

결론 : 베체트씨병에서는 다양한 임상상을 볼 수 있는데, 특히 관절증상은 대단히 흔한 증상중의 하나이며, 류마티스인자 음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회기성 류마티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